

# 공공기관 초임 3669만원 (평균) 産銀 등 국책銀 5000만원

인크루트-알바콜 취합·분석  
채용규모 한국철도공사, 한전 順

올해 공공기관 초임연봉은 평균 3669만원으로 집계됐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5173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순으로 초임 연봉이 높았다.

인크루트와 알바콜은 '2020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 참여한 141개 기관의 신입사원 연봉을 취합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집계에 반영된 공공기관은 공기업 31곳, 준정부기관 70곳, 기타공공기관 40곳이다.

지난해(2019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참여 기관 기준) 공공기관 초임연봉 평균 3642만원과 비교하면 약 0.7% 포인트 올랐다.

초임 연봉이 가장 높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5173만원)의 초임 연봉은 실적수당과 급여성 복리후생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전년(4989만원)보다 184만원 증가했다. 이어 ▲IBK기업은행(5000만원) ▲KDB산업은행(4900만원) ▲한국원자력연구원(4894만원/성과급 별도) ▲한국과학기술원(4851만원), ▲한국수자원공단(4769만원~6804만원 중 하한 기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4669만원) ▲국방과학연구소(4608만원) ▲한국예탁결제원

〈공공기관 초임 연봉 TOP5〉 /인크루트



(4553만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4535만원) 순으로 초임연봉 상위 10위를 기록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의 경우 초임 연봉 디렉토리 북에 기재된 연봉 상한선 6804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가장 높다.

지난해 대학생이 가장 선호하는 공공기관(2019년 7월 인크루트 조사) 1위에 꼽힌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올해 초임 연봉은 4457만원으로 10위권 밖이었다. 8개 사업분야별로 보면 ▲에너지 분야가 평균 3714만원으로 초임 연봉이 가장 높았고 이어 ▲농림수산환경(3696만원) ▲SOC(3677만원) ▲연구(3673만원) ▲금융 분야(3612만원) ▲고용보조직(3551만원) ▲산업진흥정보화(3535만원) ▲문화예술외교법무(3381만원)분야 순이었다.

/한용수 기자

## 올 대입 입학자원 크게 감소

# 의대·치대·한의대 오히려 상승

재수까지 감안... 최상위권 수험생 多  
의·치·한의대 평균 경쟁률 7.29대 1  
정시로 이월 인원 감소해 모수 줄어

2020학년도 대입에서는 고3 지원자를 위주로 대입 입학자원이 크게 감소했지만, 의대·치대·한의대 등의 학계열 정시모집 경쟁률은 전년보다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시모집 이월인원이 감소한데다 2021학년도 대입에서도 고3 수험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수를 감수하고라도 의학계열에 도전하는 최상위권 수험생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진학사에 따르면, 2020학년도 의대·치대·한의대 정시모집 인원은 정원내 1837명인데 1만3396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7.29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2019학년도) 6.79대 1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모집인원은 감소(184명)했고, 지원자(335명)는 더 늘었다. 올해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의대·치대·한의대 선호도가 예년과 비교해 더 높아진 셈이다.

우선 수시모집에서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해 정시모집으로 이월된 인원이 감소해 모수가 줄었다. 올해 의대·치대·한의대 수시이월 전 정시모집 인원은 1627명으로 전년(1662명)보다 35명 적을 뿐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가톨릭대, 동아대, 대구한의대, 원광대 등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한 대학이 늘었고, 이 기준을 통과해 수시모집에 등록한 인원이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정시모집으로 이

〈2019학년도, 2020학년도 의대·치대·한의대 지원자 현황〉

/진학사, 각 대학

구분	2019학년도				2020학년도				증감	
	수시 이월전 모집 인원	최종 모집 인원	지원자수	경쟁률	수시 이월전 모집 인원	최종 모집 인원	지원자수	경쟁률	모집 인원	지원자수
	전체	1,662	2,021	13,731	6.79	1,627	1,837	13,396	7.29	-184
의예	1,095	1,306	8,070	6.18	1,093	1,255	7,816	6.23	-51	-254
치의예	245	335	2,101	6.27	240	271	1,739	6.42	-64	-362
한의예	322	380	3,560	9.37	294	311	3,841	12.35	-69	281

월된 인원이 감소했다.

의대·치대는 모집인원 감소에 따라 지원자도 감소했지만, 한의예과의 경우 모집인원이 69명 감소한 반면, 지원자는 281명으로 크게 증가해 눈길을 끈다. 이는 다군 모집의 동국대 한의예과가 전년도 수확가형, 과탐 응시의 자연계열만 모집하다가, 2020학년도에 수확나형, 사탐 응시자인 인문계열 수험생 5명을 별도 모집했기 때문이다. 실제 동국대 한의예과 인문계열 지원자가 397명 몰리면서 79.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2020학년도 수능에서 수확나형이 상대적으로 어렵게 출제돼 변별력이 매우 커졌고, 다군에서 상위권 인문계열 수험생들이 지원할 대학이 많지 않아 수확 성적에 우수한 수험생들이 다군에서 수확 비중이 높은 동국대 한의예과로 몰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치의예과 지원자는 1739명으로 전년(2101명)보다 362명 감소했고, 의예과는 7816명이 지원해 전년(8070명)보다 254명 줄었다. 치의예 모집 대학이 적은 데다가 작년보다 모집 인원도 감소하면서 대학과 모집 인원이 많은 의

예과로 소신 지원한 수험생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의예과 모집 대학 중 수도권 대학은 가천대, 가톨릭대 정도만 경쟁률이 올랐고, 그 외 대학에서는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반면 수도권 외 지역 대학 중에는 경상대, 충북대, 원광대 등 경쟁률이 상승한 대학들이 많았다.

상위권 대학들의 2021학년도 이후 정시모집 확대 분위기와 올해 고3이 되는 재학생 수도 감소함에 따라 2021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상위권 대학 진학이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수험생들이 재수까지 염두하고 지역 의예과에 소신 지원했을 것이라 추정된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허철 수석 연구원은 "올해도 고3 재학생이 5만 6000여명 가량 감소하므로 점수 변별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따라서 막연한 자신감으로 의대·치대·한의대 진학을 생각하기 보다는 2021학년도 전형계획을 토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각각 2-3개 정도 찾아보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정부, 호봉제 탈피 시동... 직무·능력 중심

노동부, 기업 지원 방향 발표

“임금, 과도한 연공성 줄이도록 지원”  
전문 컨설팅 지원... 4억 예산 책정  
명확한 지침 없어 확산 미지수

정부가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는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와 능력 중심으로 개편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 지원 방향'을 발표했다.

임 차관은 "정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의 과도한 연공성을 줄이고 직무와 능력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제로 개편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는 '직무 중심 인사관리체계 도입 지원사업'을 신설해 인사관리 전반에 대해 보다 내실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직무 중심 인사관리체계 도입 지원사업은 직무급 도입을 위한 직무평가수단이 개발된 공공, 철강, 보건 의료, 정보기술(IT) 등 8개 업종의 기업이 직무급 도입을 희망할 경우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4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국내 기업은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인상되는 호봉제 중심의

연공급 임금체계를 갖춘 곳이 많다.

호봉제 비율은 해마다 감소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서 100인 이상 사업체의 호봉제 비율은 58.7%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15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근속 1년 미만 노동자 임금 대비 30년 이상 노동자 임금은 3.3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연공급이 강한 일본(2.5배)과도 격차가 컸다.

이런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는 더는 유지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국내 기업의 연공급 임금체계가 과거 고도성장 시기 노동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도 성장 과정에 있어 감당할 수 있었으나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는 맞지 않는 것이다.

연공급 임금체계에서 노동자의 고령화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늘렸고 이는 청년 채용 여력의 감소와 고령자의 조기 퇴직으로 이어졌다.

근속 기간이 긴 정규직과 그렇지 못한 비정규직, 호봉제 중심의 대기업과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도 확대됐다.

무엇보다도 근속 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고액 연봉을 받는 것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에 어긋나 불공정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석대성 기자 bigstar@

## 김은미 교수팀, 게이트재단서 45만弗 지원

〈이화여대〉

〈연구비〉

국내 연구진 최초 3회 연속 선정

이화여자대학교는 국제대학원 김은미 교수 연구팀이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게이트재단)으로부터 '한국글로벌 보건 전략(Korea Global Health Strategy)' 주제 연구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향후 3년간 총 45만 달러의 연구비를 지원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게이트 재단은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와 그의 아내 멜린다 게이츠가 2000년 설립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선재단으로, 전 세계적 차원의 질병 퇴치, 빈곤 구제, 교육기회 확대, 정보기술 접근성 향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 교수 연구팀은 지난 2013년과 2016년에 이어 국내 연구진으로는 처음으로 3회 연속 게이트 재단 연구비를 지원받게 됐다.

연구팀은 지난 2013년 9월~2016년 8월까지 '국제 보건 의료 및 개발협력 위한 한국의 역할 확대 방안 연구'를 통해 영유아 사망률 감소와 모성건강 증진을 위한 소년 건강에 주목, 개발도상국의 18세 미만 청소년기 소녀들을 조혼, 조기임신 및 출산, 성폭행, 영양



김은미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실조, 교육기회 부족, 환경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것을 역설했다.

이어 2016년 11월~2019년 10월까지 '한국 글로벌 보건 전략'을 주제로 개발도상국 소년 건강과 보건 ODA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글로벌 보건협력에 대한 국·영문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전 세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년 건강 학술경연대회를 개최했다. 또 매년 정부와 시민단체, 학계 등 국내외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각종 학술행사를 개최하고 연구결과를 출판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수행기관 선정에 따라 한국의 ODA 연구를 지속해나가는 가운데 연구의 초점을 '여성, 소년 및 영유아 건강'에 맞출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

비상교육

## 실력 ↑ '개념플러스연산'

글로벌 교육 문화 기업 비상교육은 개념을 잡아 연산실력을 높이는 연산 학습서 '개념플러스연산'을 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개념플러스연산은 초등수학 전 단원의 기초 개념을 쉽고 간결한 '한 컷 개념'으로 요약해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 했다. 초등 방정식 계산 비법을 수록해 빠르고 정확한 연산 능력을 길러주는 연산 전문 교재다.

교재는 메인 북과 클리닉 북으로 나뉜다. 메인 북은 개념별 연산훈련 문제, 수 감각을 키우는 연산 비법 강의, 연산 평가로 구성했다.

클리닉 북은 개념별로 부족한 연산 실력을 보강할 수 있는 연습 문제로 엮었다.

/한용수 기자

초등수학 연산 학습서 '개념플러스연산' 표지 /비상교육

